

「'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발표

-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 4대 전략으로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 사회적기업 예산 확대('26년 1,180억, + 315%)를 통한 지원 복원·혁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을 기본전략으로 제시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2월 24일(수) 08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온 핵심 주체이다. 특히,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 환경위기, 지역소멸 등 복합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다.

'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의 육성·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정부 주도·직접지원 중심의 지원구조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24~'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지역 기반 생태계가 급격히 약화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되었다.

* 예산 추이: ('23년) 2,042억 → ('24년) 830억 → ('25년) 284억 → ('26년) 1,180억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립했다. 현장 사회적기업, 당사자조직, 민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26년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25년 284억 → '26년 1,180억, +315%) 하되,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닌 기존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① [가치] 사회적가치 기반 지원체계 확립

우선, 기존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가치를 기반으로 발굴·육성·성장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창업지원을 복원하고, ('26년 300억),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초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육성(국비 321억 + 지방비 107억)하는 한편, 판로 플랫폼 활성화, 융자지원 신설 등 성장단계 지원^(372억)도 강화한다.

아울러, 인건비 등 각종 지원사업에 사회적가치 평가를 연계함으로써, 사회적가치가 높은 기업이 우대 지원을 받아 더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② [협력] 지역 기반의 협력 생태계 조성

둘째, 기존 개별 사회적기업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지역의 협력 생태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가치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방정부, 민간기관,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돌봄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 생태계 조성을 지원(국비 137억 + 지방비 59억)한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국비 50억 + 지방비 50억)한다.

③ [혁신] 민관협력형 지원체계 혁신

셋째, 정부주도도, 민간방임도 아닌, 균형잡힌 민관협력 지원체계로 혁신한다. 공공과 민간의 강점을 결합하여, 인증·사회적가치 평가 등 공공성이 요구

되는 기능은 공공이 담당하여 공정성과 현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지원·경영 컨설팅 등 기업지원 기능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협업 지원체제로 개편한다.

아울러, 창업·경영지원 등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지원사업을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통합 신청·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해 현장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4 [지속] 지속가능한 정책추진 기반 마련

넷째,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신뢰 회복을 위해 ‘가칭’이달의 사회적기업’ 선정 등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는 우리 사회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로, 그 중심에 사회적기업이 있다.”라며 “이번 정책 방향을 계기로 사회적기업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주요 내용

[별첨] '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	책임자	과 장	김부경 (044-202-7425)
		담당자	사무관	윤문규 (044-202-7420)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회복 및 사회적기업 지속 성장 기반 구축

추진과제

가치 사회적가치 성과 기반 지원 강화

-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 사회적가치 연계 통한 사회성과 제고 유도



발굴

육성

성장

유형별 창업지원

인건비 지원

판로·경영 자금지원

사회성과

협력 지역 기반의 협력 생태계 조성

- ✓ 지역 주체간 협력
통한 로컬임팩트
모델 구축
- ✓ 사회적 성과 비례
인센티브 신설



혁신 민관협력형 지원체계 혁신

- ✓ 지역·현장 중심
민·관 협업 지원체계
- ✓ 온·오프라인
통합지원서비스



지속 지속가능한 정책추진 기반 마련

- ✓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성장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 사회적기업 인식 개선 및 신뢰 회복



중앙·지방정부·사회적기업·민간기관 "협업 거버넌스"